

# 특집

## 급변하는 재난양상, 진화하는 방재계획

지금까지의 재난복구정책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현대사회에서 재난피해의 양상은 너무 복잡적이므로 물리적 피해를 복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18년 포항 지진, 2019년 강원 산불,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험한 바다, 재난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경기침체, 주민의 심리적 고통 등 앞으로 다루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재점검하고 그동안 연구한 성과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재난양상에 대응한 방재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집기획: 한우석 국토연구원 국가방재연구센터장